

9/16(수) 시편 묵상 21

시 83:9-18

시편 83편 전반부에서는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도말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많은 민족들이 서로 동맹하는 거만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시인은 시편 83편 후반부에서 그 원수들을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과거 수많은 원수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것과 같이 원수들을 제압해 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원수들의 행동과 계획

이 시에 묘사되고 있는 원수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2-3절의 기록대로 그들은 ‘소란하고, 교만하며, 주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간계를 꾀하는 자들’입니다. 또, 그들은 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되어서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첫째로, 그들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멸하여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4절,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니이다.”). 에스더서에 보면 에돔 사람 하만이라는 악한 자도 그의 계획대로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 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진멸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에 7:4-6,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 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 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개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만의 악한 계획에서 지켜 주셨습니다. 둘째로, 원수들은 하나님의 목장을 자신들의 소유지로 빼앗고자 했습니다(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앞 절인 11절에 나오는 ‘오렙, 스엿, 세바, 살문나’를 뜻하고 또 ‘하나님의 목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가나안 땅을 뜻하는 것입니다(출 15:13,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어제 묵상한 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 이곳을 원수들이 자기 마음대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원수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며 필요할 때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서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과 싸웠던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고자 할 때 서로 간에 원수 관계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나 되었고 또 유대의 총독 헤롯왕과 로마의 빌라도가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원수들은 계속해서 동맹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5절,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공의로운 심판

이제 시인은 악한 원수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7명의 구체적인 명단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게 됩니다(9-11절). 그 원수들은 바로 미디안인, 시스라와 야빈, 오렙과 스엿, 세바와 살문나 등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들이 모두 사사기에 등장하는 적군들의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 먼저 시스라와 야빈(9절)은 가나안 왕으로서 사사 드보라와 바락에 의해 제거된 인물들입니다(삿 4:4-5:31). 다음으로 오렙과 스엿은 미디안 방백이었는데 기드온 시대에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삿 7:24-25). 마지막으로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에 의해 죽임을 당한 미디안의 왕들이었습니다(삿 8:4-21). 이처럼 시인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며 사사기 시대를 회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적군들을 물리치셨던 것과 같이 지금 그들을 괴롭히는 악한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은 바로 원수들의 수치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16-18절). 16절에서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해달라”**는 것은 ‘수치’란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는 것’을 뜻하는데 곧 시인은 그의 원수들이 너무 교만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반면 시인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 만이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높임 받으시기를 구하며 이 시를 마무리 하게 됩니다(18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원수들의 공격은 사사기 시대 그리고 구약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원수인 악한 영은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술책을 다 쓰고 있습니다(벧전 5: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존 파이어 목사는 이러한 사탄의 존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우리의 대적이다. 그의 목적은 고통과 기쁨을 이용하여 영원히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사탄은 일차적으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 것들에 계속 눈이 멀게 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는 길로 끌고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신자들을 두 가지로 공격하는데 첫째로 죄에 넘어지도록 미혹함으로써 세상으로 실족하게 만들고 또 죄로 인한 정죄와 영적 패배감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의를 따라 살아가게 함으로써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수 1:7-8).

기도제목

1. 악한 영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주의 성령 안에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아시아의 이기쁨<인도네시아>, 이드림<카자흐스탄>, 이바나바<E국> 선교사님의 가정과 현지 사역지의 건강과 필요 그리고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3.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영적인 강건함과 더불어 육적인 필요로 채워주시옵소서.